메시지 3

교회 안에 있는 합당한 한마음 한뜻에 대한 이상

성경: 엡 4:3-6, 마 18:19, 행 1:14, 2:46, 롬 15:5-6

Ⅰ. 교회 안에서의 한마음 한뜻은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다—엡 4:3-6.

A.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를 실행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라는 속성, 곧 한 영과 한 주님과 한 하나님과 한 몸과 한 소망과 한 믿음과 한 침례에 근거한 것임을 볼 수 있다.

B.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한마음 한뜻의 실행은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다—행 1:14, 2:46.

C. 하나를 실행할 때 한마음 한뜻이 함께한다. 하나가 실행될 때 이것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

1.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하나를 강조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한마음 한뜻이 강조된다—요 10:30, 17:11, 21-23, 행 1:14, 2:46, 4:24, 15:25.
2.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을 나누는 경계표는 일백이십 명 사이의 한마음 한뜻이다—행 1:14.
   a. 제자들은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 안에서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엡 4:3-6, 행 1:14.
   b. 사도들과 믿는 이들은 교회생활을 실행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실행했다—행 2:46, 4:24, 5:12.
3. 하나는 신체와 같고, 한마음 한뜻은 몸속의 심장과 같다.
   a. 한마음 한뜻은 하나(oneness)의 심장, 곧 핵심이다.
   b. 우리의 질병은 몸속의 심장에 생긴 질병과 같다.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은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병든 '심장'을 지닌 하나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D.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아닌 것은 몸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신약에 대한 합당한 해석에 따르면, 한마음 한뜻은 몸이다—롬 12:4-5, 15:5-6.
2. 우리는 반드시 몸의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한마음 한뜻을 갖게 될 것이다—고전 12:12-13, 20, 27, 1:10.

E. 우리는 한마음 한뜻을 위하지만, 획일화를 위하지는 않는다—요일 2:12-14.

1. 생명의 성숙의 정도에 있어서 성도들이나 교회들 가운데 있는 어떤 차이점도 정상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성도들이나 교회들을 획일화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장의 정도를 획일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빌 3:15.
2.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의도적으로 서로 다르게 된 것은 어떤 것이든 비정상적인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유죄 판결하고 거절해야 한다.

Ⅱ. 한마음 한뜻은 우리의 내적 존재, 곧 우리의 생각과 뜻의 조화를 가리킨다—행 1:14.

A.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한마음 한뜻'에 대한 헬라어 단어로 '호모쉬마돈(homothumadon)'이 사용되었다.

1. 이 단어는 사람의 전 존재 안에 있는 내적인 느낌의 조화를 의미한다.
2. 우리는 우리의 혼과 마음 안팎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뜻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B.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한마음 한뜻을 나타내기 위해 '쉼포네오(sumphoneo)'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다.

1. 이 단어는 '조화되다 혹은 일치하다'를 의미하며, 악기나 음성의 조화로운 소리를 가리킨다.
2. 한마음 한뜻, 혹은 믿는 이들 가운데서의 내적인 느낌의 조화는 조화로운 선율과 같다.
3.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선율이 된다. 우리는 다만 글로 쓰인 시만이 아니라 소리와 음성과 선율이 있는 시가 된다.

Ⅲ. 오늘날 우리에게는 동일한 이상, 곧 시대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음 한뜻 안에 있을 수 있다—잠 29:18상, 행 26:19.

A. 우리의 이상은 시대에 부합하는 이상, 곧 우리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상이어야 한다.
1. 우리의 이상이 최신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상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될 길이 없다.
3. 우리가 사소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라도 다른 관점을 갖는다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없다—빌 3:15.
4. 시대에 부합하는 이상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망라하는 이상이다—창 1:26, 계 21:2.

B.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 안에 있을 수 있다.
1.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에게 주신 이상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상, 곧 성경에 있는 모든 이상들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다. 이 궁극적인 완결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계 21:2, 10-11.
2. 우리는 모두 최신의 이상 안에 머물며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

Ⅳ. 사도들의 가르침은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는 요인이다—행 2:42, 46.

A. 합당한 한마음 한뜻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행 2:42.

B. 사도행전은 믿는 이들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있었으며, 한마음 한뜻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꾸준히 계속 머물렀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C. 사도들은 모든 장소와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을 가르쳤다—고전 4:17, 7:17, 11:16, 14:33하-34.
1. 우리들 또한 전 세계에 걸친 모든 나라들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동일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마 28:19-20.
2. 신약에는 어떤 가르침이 한 교회에는 적합하지만 다른 교회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상이 없다. 반대로 신약은 모든 교회들이 가르침들을 받는 것에서 동일했다는 것을 계시한다—딛 1:9.

Ⅴ. 한마음 한뜻은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 하나하나를 여는 만능열쇠이다—엡 1:3, 시 133편.

A. 우리는 모두 교회가 축복을 받는 것을 보기 원한다. 주님께서 명하신 축복인 영원한 생명은 하나 안에 함께 거하는 형제들 위에 있다.

B. 한마음 한뜻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오는 길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마음 한뜻이 된 상태 위에만 임할 수 있다.

C.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실행해야 하고, 하나를 실행하는 길은 한마음 한뜻 안에 있는 것이다—엡 4:4-6, 행 1:14.

ⓒ 2012 Living Stream Ministry